

[보도자료]

한국오가논-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전국 28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사각지대 청소년 대상 200여회 맞춤형 성교육 지원

- 코로나19 이후 취약해진 아동·청소년의 성건강 역량 증진에 초점, '세이프루언서' 2기 출범
-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 지속, 사각지대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성교육 지원 추가

2024년 3월 22일 - 한국오가논(대표 김소은)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상임대표 이명화, 이하 한성협)가 21일, 하이스쿨유스호스텔에서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업 담당자들과 세이프루언서 2기 사업설명회를 갖고, 아동·청소년 성건강을 증진을 위해 전국 28개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로 구성된 '세이프루언서 2기' 지원을 이어가며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회기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이프루언서는 SAY(Sexuality About the Youth)와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결합한 이름으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주체적으로 발언하고,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리더가 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국오가논과 한성협의 공동 지원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경험하며 취약해진 아동·청소년의 성건강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청소년 성건강 아젠다를 보다 확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들의 성교육 경험률이 10% 가까이 낮아지고¹,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며 초등학생의 성인영상 이용률이 2배 이상 증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 의한 성폭력 약 3배 증가²,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조치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전체의 21%로 5만건 이상 차지하는³ 등 아동·청소년의 성건강 역량 증진과 사회적 지원이 시급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작년 첫 시행한 세이프루언서 1기는 전국 240여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해 40여개의 콘텐츠 제작과 성건강 정책 제안문 작성 등 성건강 인식과 사회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들을 펼쳤다. 관련 효과성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성적의사결정능력, 성역할 유연성,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의 영역에서 향상을

¹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질병관리청. 2023. Available at: <https://www.kdca.go.kr/yhs/home.jsp>

²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3. Available at: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sSn=709362

³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도자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3. Available at https://www.stop.or.kr/brdarti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BHfki9u872956bn68r6Qb5&srch_menu_nix=3tt2mJYv&c_ont_idx=352

보여 세이프루언서 지원사업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올해 세이프루언서 2기 사업은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서울, 경기, 대전충청, 인천강원, 광주전라, 대구경북울산, 부산경남, 제주권역 등 전국 28개 동아리를 지원한다. 참여 청소년들은 성평등 인형극 제작, 성인권 의식 개선을 위한 UCC(User Created Contents) 및 웹툰 제작, 발달 장애 청소년의 내 몸 긍정주의 음원 제작, 지역축제 기획 및 참여, 지역사회 연계 성인권 캠페인 등 주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중간 워크숍과 정책 토론회를 통해 서로 활동을 공유하고 네트워킹 하는 기회도 갖는다.

또한 추가 사업으로 지역사회 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해 이들에게 다회기 맞춤형 성교육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위기청소년의 약 20%가 디지털 성범죄 등 온라인 인권침해 피해경험이 있고 성폭력 피해도 더 많으며 그 중 여성청소년이 더 취약하다는 실태조사⁴를 바탕으로, 세이프루언서 2기에 참여하는 22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사각지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0회에 달하는 성교육을 진행하며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사회에 성건강 아젠다가 확산되도록 성문화센터 공동캠페인도 진행한다.

한성협 이명화 상임대표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성에 대한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에게 오히려 양질의 성교육 기회가 줄어들어 안타까웠는데 한국오가논의 지원으로 사각지대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하게 돼 기쁘다. 더불어 2년차에 접어든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전국에서 다채롭게 펼쳐질 청소년들의 문화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오가논 김소은 대표는 "작년 세이프루언서 활동은 그 횟수나 참여 인원, 활동 내용 등 집계된 사업의 결과 뿐만 아니라 함께 한 현장과 과정의 목소리들에서도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평등한 성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이자 놀라운 변화의 시작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던 보람찬 기회가 되었다. 무차별적인 정보와 새로운 매체들에 의한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되고 관련한 변화 역시 전에 없이 빨라진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본인의 삶을 위해 보다 주체적이고 지혜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 이후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⁴ 202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Available at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05400>



[사진자료] 한국오가는-한성협 청소년 성문화 동아리 및 사각지대 청소년 맞춤형 성교육 지원